

# SRI

## 정책리포트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및 수원시 산업별 실업 추정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nell7508@suwon.re.kr

#### 요약

-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향후 수원시 경제에 부정적 요인일 될 산업별 실업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 모색을 목표
- 코로나19에 따른 수원시 실업자 수 변화는 가장 최악의 경우 전산업 기준 14,404명이 증가, 총 실업자 수가 42,504명에 이를 전망(추정3)
- 가장 건전한 상황의 경우 수원시 전 산업에 걸쳐 5,931명으로 추정되며 수원시 총 실업자 수는 34,031명으로 추산(추정1)
- 보통 규모 상황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9,828명의 실업자가 증가해 총 37,928명의 실업이 발생할 전망(추정2)

#### 정책제안

- 국내 코로나19 감염은 점차 완화되어 진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업, 소상공 등 서비스업 분야 내수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
- 그러나 해외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관광관련 산업, 항공 및 해상산업, 부품공급망 와해에 따른 손실 예상 산업, 정유업, 제조업 등 글로벌 경기변화에 민감한 산업의 침체는 계속될 전망
- 수원시는 서비스업 중심 구조로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이 전망되나 제조업 등 파급력이 큰 분야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중견 및 대기업 운영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 실업지원을 위해서는 수원 소재 사업장 소속, 수원시 피고용인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사유로 실업에 처하였을 경우 실업급여와 별개로 수원시에서 생계지원금(취업장려금) 일정금액 지원 방안 등을 고려

Keyword : 코로나19, 실업자 수, 실업급여, 실업률, PM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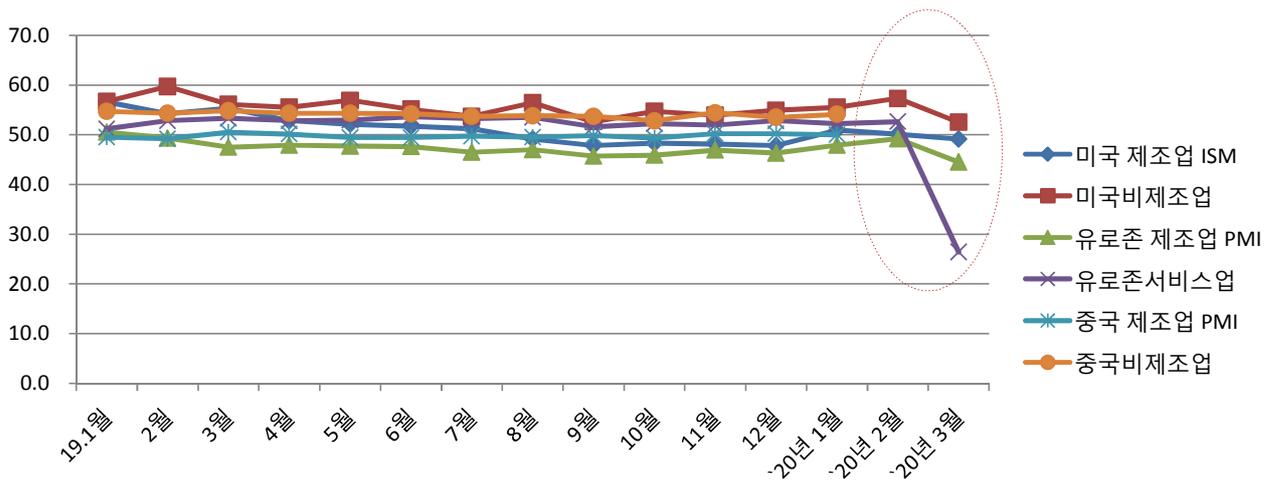
#### 수원시정연구원 현안수시보고서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수원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원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의 영향이 중국, 한국, 일본에 이어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 세계 전역으로 확산
  - 3월 말 기준 미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이탈리아와 중국보다 많은 86,012 명으로 증가
- 세계 각국에서 생산활동 중단 및 대량 실업으로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역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PMI(구매관리자지수) 급락
- 수원시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제조업을 비롯 사업지원서비스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실업 증가 추세
  - 수원시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2월 총 12,676명으로 제조업 2,229명, 사업지원서비스업 1,918명, 건설업 1,457명 도매 및 소매업 1,347명 등
-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향후 수원시 경제에 부정적 요인일 될 산업별 실업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 모색을 목표



[그림 1] 글로벌 산업생산 추이

※ ISM(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발간하는 구매관리자 지수), PMI(Purchasing Manager' Index; 구매관리자 지수) 지수: 기준선 5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위축, 50 이상의 경우 개선 및 회복을 의미

## II.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및 실업 현황<sup>1</sup>

### 1 한국

- 국내 실업률은 2월 3.3%에서 3월 3.8%로 0.5%p 증가하였고 실업급여 지급건수는 전월대비 36,848건 증가한 545,283건에 육박
  - 3월 실업자 수는 2월 927,000명에서 3월 1,054,000명으로 127,000명 증가
  - 청년 실업률은 2월 9%에서 3월 9.7%로 0.7%p 증가하며 청년층 고용이 더 악화된 모습
  - 2월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제조업(102,627건), 건설업(67,073건), 사업서비스업(63,362건), 도매 및 소매업(56,389건) 등에서 가장 크게 증가
- 2월 기준 국내 산업생산은 제조업,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감소
  - 2월 산업생산은 전산업 기준 전월대비 3.5%, 광공업 3.8%, 제조업 4.1%, 서비스업 3.5% 하락
  - 전월대비 제조업 생산 위축이 가장 크게 나타난 분야는 자동차(-27.8%), 일반기계(-5.9%) 분야 등
  -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27.2%), 숙박 및 음식점(-18.1%), 운수업(-9.1%) 순

〈표 1〉 한국 산업생산 추이(2020.2월 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원지수(2015=100)	98.9	100.6
전월대비(%)	-4.1	-3.5

1 각국 ISM, PMI 지수

## 2 미국

- 미국 3월 실업자 수는 전월 대비 1,353,000명 증가해 7,140,000명을 기록하였고 월별 실업률 역시 3월 4.4%로 전월 대비 0.9%p 증가
  - 미국 실업률은 1월 3.6%에서 2월 3.5%로 감소하였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3월 4.4% 기록
- 3월 2주차 280,000건이었던 실업청구수당은 3월 3번째 주까지 일주일 안에 역대 최고치인 3,300,000건까지 급증
  - 주로 레스토랑과 호텔 등의 일자리 크게 위축
- ISM 지수도 전반적으로 하락
  - 2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전망치는 50.1을 기록하였지만 이는 지난 몇 주간의 상황이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보잉과 자동차 제조업 생산이 중단된 만큼 ISM 제조업 지수는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
  - 3월 ISM 지수 수정 전망치는 49.1로 기준선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4월 전망치 역시 더 크게 하락한 36.7
  - 비제조업 ISM 지수는 2월 57.3에서 3월 5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시차를 반영할 경우 44.0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표 2〉 미국 제조업 , 서비스업 ISM 지수

	미국 제조업 ISM지수	미국 비제조업 PMI 지수
2020년 2월	50.1	57.3
2020년 3월	49.1	52.5(44.0)

### 3 중국 및 일본

#### 1) 중국

-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투자심리지표와 중국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초기 발발한 중국은 3월부터 지표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
- 사업장 폐쇄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정부의 여러가지 규제들로 인해 2월달 중국 PMI 제조업지수는 급격히 하락 후 3월부터는 반등하며 회복 조짐
- 중국 실업률은 1월과 2월 6.2%로 공표되고 있으나 실제 실업률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전망

〈표 3〉 중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

	중국 제조업 PMI 지수	중국 서비스업 PMI 지수
2020년 2월	40.3	26.5
2020년 3월	50.2	43.0

#### 2) 일본

- 소비자 신뢰지수가 3월 30.9를 기록하며 1월 39.1, 2월 38.4 대비 큰 폭으로 하락
- 제조업 PMI 역시 2월 47.8, 3월 44.2 등 50 이하에서 더욱 하락하며 생산 위축 가시화
- 서비스업 PMI 지수는 2월 51에서 3월 33.8로 제조업 보다 더 크게 하락
- 일본 실업률은 코로나19의 영향이 덜 반영된 2월 기준 2.4%로 1월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높은 4.2% 기록
- 실업자 수는 2월 1,660,000명에서 4월 19일 기준 3,260,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

〈표 4〉 일본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

	일본 제조업 PMI 지수	일본 서비스업 PMI 지수
2020년 2월	47.8	51
2020년 3월	44.2	33.8

## 4 유럽

-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1.6으로 1월 -8.1, 2월 -6.6 대비 2배 가까이 악화
- 유로지역 생산지수인 제조업 PMI 지수는 2월 49.2에서 3월 44.5로 하락
- 서비스업 PMI는 더 크게 하락해 2월 52.6에서 3월 26.4로 급락, 서비스 분야에  
서 심각한 경기 악화 양상
- 고용시장 불안으로 실업률은 내년 2배로 증가할 우려
  - FT,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및 영국에서 5,900만명이 실  
업 위기에 놓여 있다고 언급
  - 맥킨지, 2월 기준 6.5%인 EU 실업률이 내년 11.2%까지 상승할 것 전망(동  
아일보 4.21일)

〈표 5〉 유로지역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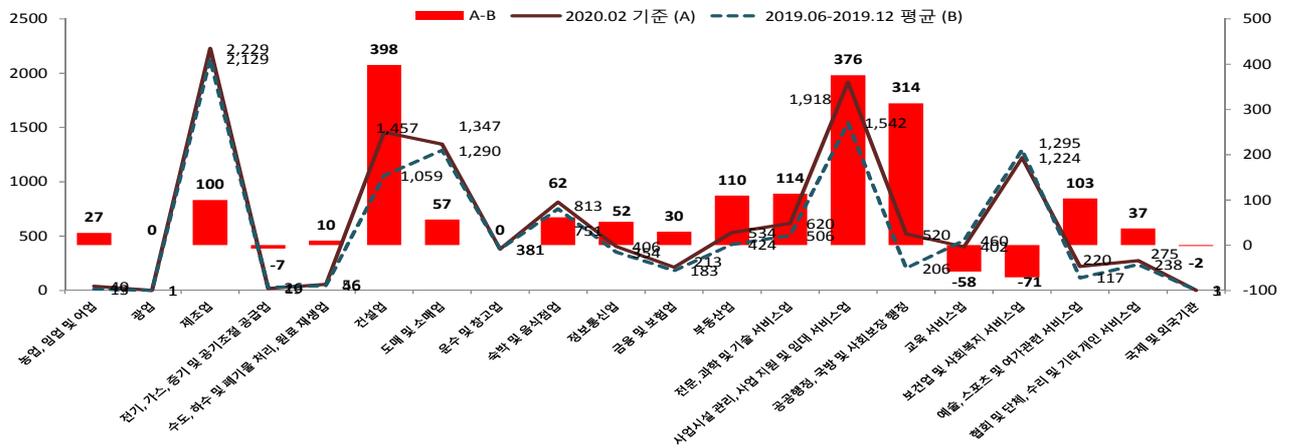
	유로지역 제조업 PMI 지수	유로지역 서비스업 PMI 지수
2020년 2월	49.2	52.6
2020년 3월	44.5	26.4

### Ⅲ. 수원시 실업 현황

- 수원시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제조업을 비롯 사업지원서비스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실업 증가 추세
- 실업급여지급자 수 기준 2월 지급자 수는 총 12,676명으로 제조업 2,229명, 사업지원서비스업 1,918명, 건설업 1,457명 도매 및 소매업 1,347명 등
  - 실업급여지급자 수는 실업급여 지급 해당자 및 신청자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총 실업의 일부만을 나타내나 변동 추이를 통해 실업 추이를 예측하는데 반영
- 이는 코로나 발발이전인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평균 11,025명 대비 1,654명 늘어난 것으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실업과 별개로 1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추가적인 실업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원시 내 실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건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분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업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7개월 평균대비 2월 실업이 더 크게 증가한 분야는 건설업 398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 376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분야 314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4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업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3명, 제조업 1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62명, 도매 및 소매업 57명, 정보통신업 52명 순
- 코로나19로 실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실업자 수 감소 71명), 교육서비스업(실업자 수 감소 58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실업자 수 감소 7명) 등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업이 감소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

〈표 6〉 수원시 실업급여 지급 추이

	2020.02 기준 (A)	2019.06-2019.12 평균 (B)	A-B
계(건/명)	12,676	11,025	1,651
농업, 임업 및 어업	40	13	27
광업	1	1	0
제조업	2,229	2,129	10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9	26	(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56	46	10
건설업	1,457	1,059	398
도매 및 소매업	1,347	1,290	57
운수 및 창고업	381	381	0
숙박 및 음식점업	813	751	62
정보통신업	406	354	52
금융 및 보험업	213	183	30
부동산업	534	424	1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20	506	1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918	1,542	3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20	206	314
교육 서비스업	402	460	(5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24	1,295	(7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0	117	10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75	238	37
국제 및 외국기관	1	3	(2)



[그림 2] 수원시 실업급여 지급 추이

## IV. 국내 및 수원시 실업 전망

### 1 국내 및 경기도 실업 전망

○ 추정방법: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지급 현황을 기준으로 추정

#### 1) 국내: 전산업 기준 66,119명 증가한 609,402명 전망

-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1월 및 코로나 피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점기인 2월 실업급여 평균치를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월평균 실업자로 가정해 추정
- 최종적으로 발생할 예상 실업자 수는 전산업 기준 코로나로 인해 66,119명이 증가한 609,402명이 될 전망: 실업급여지급 대상자 기준
  -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1, 2월 전국 평균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전산업 기준 524,859명으로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 발생 직전 7개월 평균 실업급여지급자수 458,740명 대비 66,119명 증가
  - 실업자 수에는 코로나 이외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실업을 포함하고 있어 최근 2개월 평균값에서 기존 7개월 평균치 값을 제외, 순수하게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할 실업자 수를 월 66,119명으로 추산
- 이중 제조업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6,097명의 실업이 증가해 108,724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전망
- 다음으로 건설업 분야 79,922명(12,849명 증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분야(사업서비스분야) 74,137명(10,811명 증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분야 59,867명(20,098명 증가), 도매 및 소매업분야 58,235명(1,846명 증가) 순
-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발생 증가가 가장 높은 분야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서비스분야(20,098명), 사업서비스분야(10,811명), 건설업분야(12,849명), 제조업(6,097명), 숙박 및 음식점업(2,607명) 순: 1개월 평균 실업 증가분

## 기준

-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실업자 3,632명 감소), 국제 및 외국기관(실업자 114명 감소), 교육서비스업(실업자 57명 감소),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실업자 4명 감소) 분야는 코로나19로 실업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취업 증가로 바로 해석할 수는 없으나 해당 분야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 경기도: 15,457명 증가한 총 155,190명 전망

- 경기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전산업 기준 15,457명의 실업자가 증가해 실업급여 지급대상 총 실업자 수는 155,190명이 될 전망
- 제조업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1,655명의 실업이 발생해 제조업 분야 실업자는 29,833명이 될 전망, 그 외에 사업지원서비스업분야 21,497명(코로나19로 3,349명 증가), 건설업분야 18,569명(3,506명 증가), 도매 및 소매업 17,346명(449명 증가) 순 예상
- 전국과 유사하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분야(실업자 1,572명 감소), 교육서비스업분야(실업자 198명 감소), 국제 및 외국기관(실업자 71명 감소),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실업자 26명 감소), 금융 및 보험업(실업자 23명 감소)분야에서 코로나19로 실업이 감소할 전망

〈표 7〉 코로나19에 따른 전국 및 경기도 산업별 실업발생 추정

	전국				경기도			
	평균1	평균2	평균차 (종가분)	예상 실업자 수	평균1	평균2	평균차 (종가분)	예상 실업자 수
계(건/명)	458,740	524,859	66,119	609,402	119,421	134,878	15,457	155,190
농업, 임업 및 어업	2,148	2,945	796	3,773	180	351	171	533
광업	414	500	85	585	35	36	1	37
제조업	94,509	100,606	6,097	108,724	26,020	27,675	1,655	29,83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223	1,219	(4)	1,265	253	227	(26)	21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332	3,105	773	3,998	493	637	144	811
건설업	51,115	63,965	12,849	79,922	10,691	14,197	3,506	18,569
도매 및 소매업	53,687	55,533	1,846	58,235	16,155	16,605	449	17,346
운수 및 창고업	17,501	19,538	2,037	22,205	4,093	4,583	490	5,239
숙박 및 음식점업	29,292	31,899	2,607	34,943	7,406	8,072	666	8,871
정보통신업	12,625	14,262	1,637	16,304	4,075	4,461	386	4,958
금융 및 보험업	9,131	9,373	241	10,737	2,171	2,148	(23)	2,416
부동산업	15,412	17,197	1,785	19,289	4,231	4,790	558	5,41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113	20,658	2,544	23,814	5,072	5,559	487	6,184
사업시설 관리, 임대 서비스업	48,905	59,716	10,811	74,173	13,624	16,973	3,349	21,49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7,547	37,645	20,098	59,867	2,614	6,957	4,343	11,635
교육 서비스업	16,846	16,789	(57)	17,028	4,130	3,932	(198)	3,83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3,440	49,808	(3,632)	47,843	14,333	12,761	(1,572)	11,54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806	8,647	3,841	12,951	1,313	2,229	916	3,300
협회 및 단체, 개인 서비스업	9,407	11,284	1,877	13,677	2,390	2,618	228	2,946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양육활동, 생산활동	4	5	1	7	0	0	(0)	(0)
국제 및 외국기관	283	169	(114)	60	142	71	(71)	(0)
분류불능	1	1	0	1	0	1	0	1

주1) 평균1: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실업급여지급 평균치  
 주2) 평균2: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실업급여지급 평균치

## 2. 수원시 실업 전망

### 1) 추정방법 : 3가지 추정 방법 적용, 시나리오 분석

- 추정1: 수원시 실업률이 1.4%p 증가할 것을 가정하고 수원시 산업별 총 종사자 수 기준 실업발생 예상치 추정
  - 실업률 1.4%p 증가 가정: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 평균 연간 실업률 최고치(4.6%)와 최소치(3.2%) 차이인 1.4%p만큼 실업률이 증가할 것을 가정해 추정
- 추정2: 실업률 추정 산식을 반영, 경제활동인구가 일정하게 유지되었을 때 실업자 수 변화를 추정, 실업률 변화는 1.4%p 증가할 경우를 가정
- 추정3: IMF기간인 1999년 6월 수원시 실업률만큼 실업이 증가할 것을 가정하고 추정
  - 데이터 확보 어려움으로 1999년 6월 경기도 실업률을 활용: 수원시 실업률이 최근 8년 평균 경기도 실업률대비 0.4%p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 1999년 6월 경기도 실업률 7.3%에 0.4%p를 더한 7.7%를 가정해 추산
  - 즉 코로나19로 2019년 상반기 수원시 실업률 4.3%에서 3.4%p 증가할 것을 가정

### 2) 추정1: 실업률 증가 전망치 반영 종사자 수 변화

-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원시 실업률이 1.4%p 증가할 것을 가정한 예상 실업자 수는 전산업 기준 5,931명(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실업자 수) 발생해 총 34,031명의 실업이 발생할 전망
  - 예상 실업자 수는 데이터가 공개된 2017년 전산업기준 수원시 실업자 수에 종사자 감소분을 합산한 결과
  - 추정: 실업률 증가분만큼 종사자 수가 감소할 것을 가정한 단순 적용치임
  - 각 분야 종사자 수 기준 동일한 실업률 변동분 적용

-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분야 실업자가 800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숙박 및 음식점업(663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32명), 제조업(597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42명), 교육서비스업(541명) 순 전망

〈표 8〉 수원시 실업발생 추정: 수원시 실업률 1.4% 증가 가정 산업별 추정

산업구분	사업체 수(개)	총 종사자 수(명)	종사자 감소분	예상실업자 수*
전산업	71,898	423,649	5,931	34,031
농업,임업및어업	6	185	3	
광업	0	0	-	
제조업	3,900	42,643	597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 급업	9	652	9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78	1,012	14	
건설업	2,376	23,943	335	
도매및소매업	17,131	57,152	800	
운수및창고업	7,306	18,536	260	
숙박및음식점업	13,606	47,389	663	
정보통신업	592	6,524	91	
금융및보험업	859	14,822	208	
부동산업	3,444	11,489	16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280	45,124	63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 대서비스업	1,468	33,095	463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 정	138	16,055	225	
교육서비스업	4,469	38,622	54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329	38,695	542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 스업	2,671	8,724	122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 서비스업	8,236	18,965	266	
국제및외국기관	0	0	-	

### 3) 추정2: 실업률 추정산식 반영, 전산업 기준 2019년도 상반기 수원시 실업자 수, 실업률 기준 변화 추정

- 2019년 상반기 실업률 4.3%, 실업자 수 28,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동일 경제 활동인구가 유지될 것을 가정
- 이때 실업률이 1.4%p 증가할 경우 실업자 수는 9,828명 증가해 총 37,928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전망

〈표 9〉 수원시 실업발생 추정2: 실업률 산식 반영 전산업 기준 추정

(단위: 천명)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실업률(%)
2019년 상반기	665.4	627.3	28.1	4.3
코로나 이후 전망치	665.4		37.9(9,8천명 증가)	5.7(1.4%p ↑)

주1) 산업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세부 산업별 추정치 가 아닌 전산업 기준으로 추정

주2)  $\text{실업률} = \text{실업자 수} / \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4) 추정3: IMF 기간 수원시 실업률만큼 실업이 증가할 것을 가정한 추정

-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원시 실업률이 7.7%에 이를 것 가정: 2019년 상반기 4.3% 대비 3.4%p 증가할 것을 가정해 수원시 총 종사자 감소분을 추정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예상 실업자 수는 전산업 기준 14,404명으로 기타 실업을 포함 총 42,504명의 실업이 발생할 전망
  - 예상 실업자 수는 데이터가 공개된 2017년 전산업기준 수원시 실업자 수에 종사자 감소분을 합산한 결과
  - 실업률 증가분만큼 종사자 수가 감소할 것을 가정한 단순 적용
  - 각 분야 종사자 수 기준 동일한 실업률 변동분 적용
-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분야 실업자가 1,943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숙박 및 음식점업(1,611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34명), 제조업(1,45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16명), 교육서비스업(1,316명) 순 전망

〈표 10〉 수원시 실업발생 추정3: IMF기간 수준 실업률 상승 가정 추정

산업구분	사업체 수(개)	총 종사자 수(명)	종사자 감소분	예상실업자 수*
전산업	71,898	423,649	14,404	42,504
농업,임업및어업	6	185	6	
광업	0	0	-	
제조업	3,900	42,643	1,450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9	652	22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78	1,012	34	
건설업	2,376	23,943	814	
도매및소매업	17,131	57,152	1,943	
운수및창고업	7,306	18,536	630	
숙박및음식점업	13,606	47,389	1,611	
정보통신업	592	6,524	222	
금융및보험업	859	14,822	504	
부동산업	3,444	11,489	39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280	45,124	1,53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임대서비스업	1,468	33,095	1,125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138	16,055	546	
교육서비스업	4,469	38,622	1,31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329	38,695	1,316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 서비스업	2,671	8,724	297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 개인서비스업	8,236	18,965	645	
국제및외국기관	0	0	-	

5) 코로나 19에 따른 수원시 실업자 수 추정 종합

- 이상의 추정을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에 따른 수원시 실업자 수 변화는 가장 최악의 경우 전산업 기준 14,404명이 증가, 총 실업자 수가 42,504명에 이를 전망이다(추정3)
- 가장 건전한 상황의 경우 수원시 전 산업에 걸쳐 5,931명으로 추정되며 수원시

총 실업자 수는 34,031명으로 추산(추정1)

- 보통 규모 상황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9,828명의 실업자가 증가해 총 37,928명의 실업이 발생할 전망(추정2)

〈표 11〉 코로나19에 따른 수원시 실업 변화 시나리오별 전망

단위: 명	최소(추정1)	보통(추정2)	최악(추정3)
코로나19 영향 수원시 실업자 수 증가분	5,931	9,828	14,404
영향 반영 후 수원시 실업자 수	34,031	37,928	42,504

〈표〉

**【참고】 수원시 업황 전망**

- 업황 BSI 지수 하락, 어음교환액 증가, 부도액 증가, 부도율 증가 등 단기적인 어려움 예상
  - 경기지역 제조업 3월 업황 BSI(기업민감지수)는 전월대비 7p(68→61)하락, 다음달 업황전망 BSI도 17p(75→58) 하락
  - 경기지역 비제조업 3월 업황 BSI는 전월대비 11p(65→54) 하락, 다음달 업황전망 BSI도 전월대비 18p(67→49) 하락하는 등 내수불안, 경제 불확실성으로 수원을 비롯한 경기지역 업황 침체 예상
  - 수원시 어음교환액은 2019년 12월 6,610억원에서 올 1월 7,951억원으로 1,341억원 증가: 통상 시중 교환액은 3배 이상 거래되므로 실제로 약 4,425억원 가량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 어음 부도액 역시 2019년 12월 대비 5억원 증가하는 등 부도율 역시 5%p 증가

(억원, %)	수원시 어음교환액(A)	부도액(B)	부도율(B/A)
2019.12	6,610	0	0.01
2020.1	7,951	5	0.06

## V. 향후 전망 및 정책 제언

- 국내 코로나19 감염은 점차 완화되어 진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업, 소상공 등 서비스업 분야 내수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
- 그러나 해외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관광관련 산업, 항공 및 해상산업, 부품공급망 와해에 따른 손실 예상 산업, 정유업, 제조업 등 글로벌 경기변화에 민감한 산업의 침체는 계속될 전망
- 수원시는 서비스업 중심 구조로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이 전망되나 제조업 등 파급력이 큰 분야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견 및 대기업 운영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 또한 새로운 전염성 감염 위험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위생 및 방역 체계를 준비
-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배달앱 개발의 경우 민간 위탁의 형태로 진행하되 공공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업체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에서 시장 질서를 유지
  - 이미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대기업 횡포로부터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 및 견제
  - 아직 배달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골목상권, 시장상인들의 경우 공공앱을 이용해 회원등록, 배달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앱활용과 배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의 포장, 배달이 용이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
- 카드연체방지 지원에 카드결제 자금 저리 대출 방안 등 모색
  - 카드연체가 예상되어 급히 자금이 필요한 시민 및 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다음 달 결제대상금액의 50%(예시비율)를 저리로 대출, 3개월간 매월 신청 가능하도록 함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형태로 1~2%로 하고 상환기한을 6개월, 1

년 거치 방식으로 운영

- 저리의 리볼빙 효과를 제공하고 수원시 자금 부담은 낮출 수 있음
- 실업지원을 위해서는 수원 소재 사업장 소속, 수원시 피고용인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사유로 실업에 처하였을 경우 실업급여와 별개로 수원시에서 생계지원금(취업장려금) 일정금액 지원 방안 등을 고려
- 사유, 내용, 사실 증명 등 확인



발행인 □ 최병대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031,220,8001

[www.suwon.re.kr](http://www.suwon.re.kr)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수원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